

행안부 이어 기재부까지 1000억대 프로젝트 수주

# 6년만에 돌아온 삼성SDS, 공공수주 연타석 홈런

디브레인 구축사업서 우선협상 0.4789점 차이 LG CNS 앞서 기술 평가에서 0.7점 더 높아



삼성 SDS 춘천 데이터센터 전경

대형 시스템 통합(SI) 업체 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그간 SI 업체는 그룹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지만 매출 한계에 부딪히면서 외부 사업 확장이 불가피해졌다. 공공사업은 손실이 큰 사업이지만 일단 매출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1200억원 규모의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디브레인 사업은 2022년까지 11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 최대 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지난달 12일 첫 입찰에서 삼성SDS

가 단독으로 나서며 한 차례 유찰됐지만, LG CNS가 뛰어들며 대형 SI 업계 간 경쟁으로 주목받았다. 평가 결과 삼성SDS가 0.4789점 차이로 LG CNS를 앞섰다. 양사 모두 90%의 입찰가를 제시했는데 삼성SDS의 입찰 가격이 더 높아 가격 점수에서 0.2점 낮았지만, 기

술 평가에서 0.7점 앞서며 수주를 따냈다.

이로써 삼성SDS는 6년 만에 공공 사업 시장에 재진입해 두 차례의 대형 공공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흥원표 삼성SDS 대표는 올해 초 2019년 경영방침으로 '대외사업'을 강조했다. 올해를

돌아보면 성공적인 확장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앞서 삼성SDS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668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설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모는 196억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본사업 수주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1단계 사업 수주 기업이 사실상 향후 2년 동안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예외 사업에서는 LG CNS가 단독 선두였다. 하지만 삼성SDS가 들어오면서 두 회사 간 경쟁이 시작됐다.

LG CNS는 지난 8월 삼성SDS를 제치고 NH농협캐피탈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300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본사업(1600억원),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3000억원), 우체국 금융차세대 시스템(2000억원) 등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총 1조원대 대형 차세대 IT사업이 최근 발주되거나 발주될 예정이어서 대형 SI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SK C&C는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은 손실이 큰 사업으로 여겨지지만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며 "0.1점 차이로 최종 수주 여부를 가를 수도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정제마진 악화된 정유업계 3분기 이어 4분기도 '우울'

정제마진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 수급 불균형 대표적 이유로 꼽혀



여수에 있는 정유·화학 산업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3분기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정유업계가 4분기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내 정유사는 지난 3분기 좋지 못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요 둔화와 전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들어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정제마진이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4분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올해 3분기 대부분 영업이익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나타냈다. 대표 정유업체인 SK이노베이션은 매출액 12조3725억원, 영업이익 3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3%, 60.5% 감소했다. 특히 석유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65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6.4%나 급감했다.

GS칼텍스도 매출액 8조9457억원, 영업이익 322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8%, 49.3% 줄었다. 이밖에 3분기 영업이익에서 현대오일뱅크는 1578억(-34.3%), 에스오일은 2307억(-26.9%)을 기록했다.

국내 정유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데는 수급 불균형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됐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공장 설비가 증설되며 공급은 외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 정유업계가 지난 2, 3분기에 수출한 석유제품 물량은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수출 물량이 전년 동

기 대비 0.8% 감소해 2014년부터 시작된 수출물량 증가세가 6년만에 멈췄다. 또한 올해 들어 미국의 대이란 제재·이란 유조선 괴적 등 지정학적 이슈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유조선 운임비가 급등해 수익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정제마진의 흐름세가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데 있다. 지난 11월 셋째 주 기준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0.6달러로 떨어지며, 주간 평균 기준 2001년 6월 첫째 주 -0.5달러를 기록한지 18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만 해도 배럴당 10달러를 웃돌던 수준에서 급격히 추락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이 4분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병커 마진이 작년에 -5달러를 기록하다 최근 -25달러까지 빠졌다. 이러한 부분이 싱가포르 마진의 하락을 이끌어냈다"며 "그럼에도 정유사들의 수익성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4분기 실적은 병커를 제외한 가솔린이나 납사, 등경유 쪽 마진이 나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나아지거나 정기보수가 있었던 회사들의 경우 최소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신보중앙회, 내년 소상공인 보증규모 26.4조

### 김병근회장 기자간담회

올해 예산 대비 5조원 증가 취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를 내년에 26조4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조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특히 기존 최저임금 보장 특례보증, 헤드림 특례보증 등과 함께 채권매각·소각을 통한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확대, 중·저신용자 전용보증 등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발급 비율 가운데 94%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까지 포함하면 99%가 소상공인·소기업 등 제1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계층이다.

그만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보가 보증을 제공해 이들의 자금용통을 돕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소비위축, 각종 비용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보중앙회가 적극 대응해 내년엔 보증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시32회 출신으로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거친 김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신보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3년 임기 중 절반 가까이를 보낸 그는 "취임하고 나서부터 줄곧 강조한 것은 양적으로 보증규모를 늘려 많은 소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내년 주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수요자들이)보증을 좀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증수요가 많은 만큼 상당 기간 양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엔 늘어나게 될 5조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증가치 이긴 하지만 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156개 지점을 매주 1~2곳씩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위한 내년 주요 보증은 ▲경제활력제고 특별보증 1조5000억원 ▲최저임금 보장 및 위기지역 지원 특별보증 8000억원 ▲1%대 초저금리 협약보증 6000억원 ▲스마트소상공인 지원보증 2000억원 ▲중·저신용 포용금융 지원보증 1000억원 등이 다.

김회장은 "1%대 초저금리 협약보증은 소상공인들의 이자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기 때문에 현장의 반응이 좋다"면서 "내년 보증규모로만 수요자들이 연간 약 100억원(6000억원×대출 가산

금리 1.65%)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보중앙회는 내년에 1000억원을 배정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신용 5~8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수요대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신용기업의 경우 고금리 다중채무 보유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지역신보의 보증부 저금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에도 힘쓴다.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카드 매출 대금 회수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인터넷 쇼핑몰 등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해, 나머지 1000억원은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식기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현장 실사를 생략하는 등 인력 확충 애로에 따른 대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